

이다연·박현경·이예원 우승 도전...KLPGA 챔피언십 개막

시즌 첫 메이저 대회 25일 열려...황유민·김재희·박지영 등 출격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4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크리스토프앤씨 제46회 KLPGA 챔피언십(총상금 13억원)이 25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양주시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파72·6554야드)에서 열린다.

KLPGA 메이저 대회는 1년에 5차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시작으로 6월 DB그룹 제38회 한국여자오픈, 8월 한화 클래식, 9월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0월 제24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으로 이어진다.

KLPGA 챔피언십은 1978년 출범한 KLPGA와 역사를 함께 하는 가장 오랜 전통의 대회다.

올해도 지난해 우승자 이다연을 비롯해 2020년과 2021년 챔피언 박현경, 2024시즌 벌써 1승씩 거둔 황유민, 김재희, 박지영, 이예원 등 투어 톱 랭커들이 대부분 출전한다.

이다연은 "KLPGA의 탄생과 많은 선배 선수가 이뤄낸 우승의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역사 깊은 대회가 된 KLPGA 챔피언십의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사실이 영광"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할 수도 꼭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즌 초반 허리 부상 여파가 있어 아직 컨디션이 100%는 아니다"라며 "레이크우드 컨트리클럽을 좋아하고, 성적도 잘 나오는 코스지만 그린이 어려워 세컨드 샷 공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2021년과 2022년 정상에 오른 박현경이 올해 우승하면 이 대회에서 3회 우승한 고(故) 구옥희, 김순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은 4회의 고우순이다.

대상 포인트 1위인 박현경은 "가장 좋아하는 대

회면서 또 가장 의미 있는 대회"라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만,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차분하게 경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상금 1위를 달리는 황유민은 "이번 시즌 목표가 다승인데, 역사와 전통의 이 대회에서 시즌 2승을 노리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에 출전하고 돌아온 방신실과 최근 컨디션 난조로 휴식을 취한 박민지도 정상을 노린다.

또 2014년 백규정 이후 나오지 않는 신인의 이 대회 우승에 유현조, 윤민아, 이동은 등이 도전한다.

대회장 이벤트 부스에서는 제16대 KLPGA 홍보모델 팬 사인회가 매 라운드 진행되며 방문 갤러리에겐 모자, 우산 등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선별한다.

/연합뉴스



임성재,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 나서

25일 페럼클럽...“생애 첫 타이틀 방어 위해 최선 다할 것”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대회에서 생애 첫 타이틀 방어를 노린다.

임성재는 25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여주의 페럼클럽(파72·7232야드)에서 열리는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에 출전한다.

임성재는 지난해 5월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 2019년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이어 K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둔 바 있다.

우리금융 후원을 받는 임성재는 이 대회가 처음 개최된 2022년에도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 코로나19에 걸려 불발됐고, 두 번째 도전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후 지난해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에도 나서서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으나 마지막 날 연장전에 끌려간 끝에 박상현에게 우승을 내줬던 임성재는 6개월 만에 국내 대회 타이틀을 방어한다.

프로 생활을 하며 PGA 투어에서 2승, 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임성재는 아직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적은 없어서 이번 대회에서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KPGA 투어에서 대회 2연패를 이룬 선수는 2020년과 2021년 GS칼텍스 매경오픈의 이태희가 있다.

시즌 첫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첫

탈락했던 임성재는 22일 끝난 RBC 헤리티지에서선 공동 12위로 선전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그는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다.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출전해 코스와 분위기에 익숙하다"면서 "나를 내내 최선을 다해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우리금융 챔피언십은 DP 월드 투어 공동 주관인 10월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400만 달러·약 55억원), 6월 KPGA 선수권대회(16억원)에 이어 이번 시즌 KPGA 투어 중 3번째로 상금 규모가 큰 대회다.

이달 11~14일 열린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투어 첫 승을 달성한 윤상필은 시즌 2승 선착에 도전한다. 지난해 KPGA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하며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1154.2점)와 상금(1억4844만원) 모두 선두를 달리는 고군택이 일본 투어 대회 출전으로 이번 대회에 불참해 두 부문 모두 현재 2위(1천점·1억4천만원)인 윤상필에게 1위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한국, 파리올림픽 금메달 9개...총 24개 예상

오는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금메달 예상치가 1월보다 2개 늘어난 9개로 예측됐다.

미국 낚스 산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는 파리 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지난 17일(한국시간)에 펠던 정기 보고서에서 한국이 금메달 9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1개를 합쳐 24개의 메달을 따낼 것으로 예상했다.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를 아울러 23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관측한 올해 1월 예상치와 비교하면 금메달 수와 동메달 수는 증가하고, 은메달 수는 줄었다.

그레이스노트는 올림픽 개막을 1년 남긴 지난해 7월에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4개를 포함해 29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림픽 개막일이 1년→6개월→100일로 줄어들면

서 그레이스노트의 예측 수치도 조금씩 달라졌다.

그레이스노트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강세 종목인 양궁과 펜싱을 앞세워 금메달 5~6개 획득을 목표로 파리 올림픽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태권도, 배드민턴, 수영 등에서 추가 금메달이 나올 수 있다.

그레이스노트의 4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독일, 브라질과 금메달 수에서 9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체 메달 수에서는 캐나다(22개), 스페인(20개)과 경쟁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전체 메달 수 순위, 금메달로만 가리는 순위 모두 10위를 달렸다.

미국이 금메달 39개 등 전체 123개의 메달을 획득해 금메달 35개를 합쳐 89개의 메달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중국을 무난히 따돌릴 것으로 그레이스노트는 점쳤다.

/연합뉴스

‘체조 유망주’ 광주체고 문건영 전국체조선수권대회 5관왕



‘한국체조 유망주’ 광주체고 문건영(3년)이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에서 5관왕에 올랐다. <사진>

문건영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5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다.

6개 종목 예선(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에서 점수 합산으로 개인종합 1위에 오른 문건영은 종목별 결승에서 마루, 안마, 도마, 평행봉 등 4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건영은 링 결승에서 동메달을 더했고 철봉 결승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페퍼저축은행배 1위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지난 20일 2025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윤태성 50m 전종목 석권 5관왕 개인종합 이화숙 1위·정진영 3위

2025년 장애인양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이 활약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인천 계양경기장에서 진행된 ‘제2회 페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겸 202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광주시청 윤태성이 전종목 금메달을 따내며 5관왕을 차지했고, 이화숙과 정진영이 2관왕에 올랐다.

윤태성은 대회 50m, 50m 종합, 개인전, 더블종목에서 우승했고 혼성단체전에서 정진영과 1위를 합작했다. 정진영은 대회 50m에서 1위, 개인종합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화숙은 50m 종합과 개인종합에서 1위에 올랐다.

이들의 활약으로 광주시청은 시도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윤태성은 2022년 광주장애인양궁협회 신인선

수로 발공돼 지난해 2월부터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장애인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다 지난달 광주시청에 입단했다. 그는 꾸준한 훈련과 자기 관리를 통해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안형성 감독은 “윤태성 선수가 아직 신인이라 경험이 부족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힘든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 다양한 실전 경험만 쌓는다면 한국 장애인양궁을 대표하는 스타선수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광주시청팀의 모든 선수가 올해 치러질 네 번의 전국대회에 참가해 활약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두고 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숙은 “2025년도 세계 선수권대회도 광주에서 열리는데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나도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하겠다. 우리 감독님과 함께라면 금메달도 가능할 것 같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장애인양궁 국가대표는 1~4차선을 거쳐 배정 함께로 선발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범죄도시4
- 2관 범죄도시4
- 3관 범죄도시4, 몬스터 프렌즈
- 4관 범죄도시4
- 5관 범죄도시4
- 6관 범죄도시4
- 9관 남은 인생 10년, 챌린저스
- 7관 씨네커피룸 쿠푸맨더4, 오멘: 저주의 시작
- 8관 씨네커피룸 파도, 댓글부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5월

광주상설공연

2024년 광주상설공연(5월)

일시 : 2024-05-04(토) ~ 2024-05-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광주시립발레단 제137회 정기공연 「DIVINE」

일시 : 2024-05-24(금) ~ 2024-05-25(토)

05.24(금) 19:30

05.25(토) 15:00,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